

# 신행과 수행의 나침반으로 종보를 탈바꿈하자

## 제4회 총지종보 전국 통신원 워크숍. 5월 24일 전주 흥국사, 한옥마을, 김제 금산사



▲ 전주 흥국사에서 통신원 워크숍을 마치고

제4회 총지종보 전국 통신원 워크숍이 5월 24일 전주 흥국사와 한옥마을, 김제 금산사에서 열렸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불볕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여명의 통신원들이 흥국사로 모여들었다. 기로스승 총지화 전수, 수증원 전수, 흥국사 지정정사, 만보사 승원 정사, 정각사 범상정사, 흥국사 김현정 신도회장이 전국의 통신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6개월 만에 다시 모인 종보 통신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 기로스승 총지화 전수의 감동적인 특강

흥국사 주교 지정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입제식은 총지종 교화발전과 종보 통신원 워크숍

원만을 서원하며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다. 이어 김종열 기자의 사회로 개회식이 열렸다. 범등 통리원장은 흥국사 주교 지정정사가 대독한 격려사에서 “별써 종보를 창간한지도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전주 흥국사에서 개최되는 제4회 총지종보 전국통신원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과 사원을 대표하는 통신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보의 편집방향과 앞으로 어떤 신문으로 발전하면 좋은지를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보를 취재, 편집 제작하는데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며 종보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정, 전라 교구 신정회 민순분 회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총지종보 통신원 워크숍에서 통

신원 여러분의 열의를 온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전주에서 다시 만나 종보의 미래를 논의하는 통신원여러분들과 총지종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통신원들을 격려했다.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항상 종보의 편집과 운영에 노력을 다하시는 통신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감회가 남다롭습니다. 우리종단이 한국 불교 종단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총지종보를 통해 종단의 신행 활동을 알린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종단 발전과 신행 및 교화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또한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지정정사님과 김현정 신도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며 종보 발전을 위한 통신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잠깐 휴식 시간 후에, 워크숍 특강이 이어졌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을 지낸 총지화 기로스승은 “총지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약 40분가량 특강을 하였다.

특강에서 총지화 기로스승은 “총지종은 밀교 중에서 가장 정연한 이론과 사중수법 등의 의례를 가진 유일한 종단입니다. 원정 대승사께서 입교개종하신 정신을 온전히 이어 받아 잠시 주춤한 교화에 새 물결을 이룹시다.”며 총지종의 창종 연원과 이론적 바탕을 논리 정연하고 쉬운 말로 통신원들에게 전했다.

### 신행 위주의 종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어 김종열 기자가 제3회 전국 통신원 워크숍에서 결정된 종보 편집에 관한 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사진설명 추가와 지역 기사의 통신원 기명 사항은 워크숍 개최 직후인 지난 1월호부터 시행하였다. 앞으로의 종보 개선 방향 토의에서는 종보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신행위주의 기사들을 보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도들의 신행체험담은 종교 신문의 필수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가능한 매월 신행과 관련된 소식과 교도들의 동정을 편집의 최우선으로 하라고 결의했다. 이에 김종열 편집장은 그동안 신행 기사 현황을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와 통신원들의 결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토의를 마친 통신원들은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했다.

### 전통 성당과 금산사 취재 실습

점심식사를 마친 통신원들은 한옥마을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사당인 경기전, 전통성당에서 취재 실습을 했다. 먼저 현재 전주시에 세워진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호남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영화의 촬영지나 결혼식 장소로 자주 쓰이기도 한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천주교 신앙이 허용되면서 개항지가 아니었던 전주시에도 선교사가 들어왔으며, 1891년에는 전주성당 (현재의 전통성당) 주임인 보두네 신부가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민가를 사들여 임시로 성당을 세운 것이 시초다. 통신원들은 유렵풍 건물 자세히 취재하고,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신성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경기전 둘레 길을 걸으며 고즈넉한 전주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았다.

한옥마을을 출발하여 김제 금산사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흥국사 지정 정사님의 배려로 문화재 해설사가 통신원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금산사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로 총무원장을 지낸 송월주 스님이 회주로 계신 백제시대 고찰이다.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창건되었고 진표율사에 의해서 중창 되었다.후백제 935년에 장남신검(神劍)에 의해 견훤이 유폐되기도 하였다. 1961년에 송월주 스님이 금산사 주지로 취임 후 도영, 도법, 평상, 원행 스님에 의해 완전히 복원 되었다. 미륵전의 미륵보살상은 육내 입불로



▲ 특강하시는 총지화 기로스승님



▲ 금산사 미륵전 = 강경민 편집위원



▲ 평생도반 = 최영아 편집위원

서는 세계 최대라 하며, 삼존불 중 가운데 미륵불상이 11.82m, 좌,우불상은 8.8m이나 된다.

주전인 대적광전은 1986년 12월 원인 모를 화재로 완전 소실되어 1988년 복원에 착수하여 원형 복원되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통신원들은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로 경내를 참배하고, 각자 취재노트를 열심히 채워나갔다. 당일 일정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오후 5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사원으로 출발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기로스승 총지화전수님, 수증원전수님, 지정정사님, 승원정사님, 범상정사님, 김은숙 회장님, 민순분 회장님, 김현정 회장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흥국사 모든 교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사가 원만하기를 서원했다.

진행= 이수협 계장, 김정연 교무, 조정아 교무



전동성당 = 김윤경 통신원



경기전 꽃밭 = 김은숙 지회장



정각사에 핀 홍맹정진꽃 = 이상록 통신원

###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 8대 성지순례

- 순례기간 : 2013년 11월 20일(수)~ 30일(토) (10박 11일) / 부산출 · 도착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Umbini)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想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살리(Vaishali)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가원정사(伽藍精舍)” 스라바스티(Seavasti)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寶寶階) 산카시아(Sankasia)

“부처님 열반지” 쿠슈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 2,690,000원(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 가족
- 신청기간 : 2013년 9월 30일까지
- 신청 및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정각사 ☎ 051\_552\_7901

정각사 범상정사 H,P 010\_5521\_3400

포커스투어 ☎ 051\_463\_4144 H,P 010\_9763\_0700





불교 충지종

충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충지종보

2013년 6월 1일  
음력 4월 23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3호

## 연등으로 밝힌 평화와 청정의 세상 불기2557년 서울, 부산 연등제 봉행

## 총기 42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입제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호국가와 조상불공으로



▲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연등제 / 아기부처님 관육하는 법등 통리원장



▲ 총본산 총지사 49일 불공 입제식

불교충지종의 전통적인 수행인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가 5월 28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입제식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공은 상반기 자녀불공에 이어 호국안민과 '조상불공'으로 유연, 무연 조상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살아계신 부모의 안녕을 위한 서원으로 49일간의 불공에 입한다.

충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총본사 총지사 하반기 49일 불공 입제식 설법을 통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49일 조상불공의 입제 불공 때 마음먹은 대로 서원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49일 후에는 이루고자하는 열매의 과를 맺으시기 바랍니다."며 49일간의 불공기간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매일 오전 10시 전국의 서원당에서 봉행되는 불사는 7월 15일 회향을 마치고 전 교도들이 참석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방생법회)를 봉행 할 예정이다.

불기2557년 봉축 연등제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봉행되었다. 5월 28일 서울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불교충지종을 비롯한 주요종단과 서울 시내 국인 관광객, 시민 등 약5만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부산 시내에는 연등축제를 동참하는 불자와 외국의 관광객, 시민 등 약5만여 명이 함께했다. 서울, 부산=김종열 기자

사찰이 동참한 연등회가 봉행되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희망의 함성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화합의 잔치마당을 열었다. 청소년부터 성인으로 구성된 각 등단 별 연희단의 율동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어 조계종 광전스님의 사회로 연등법회가 봉행되었다. 충지종 법등 통리원장을 비롯한 주요종단 대표의 관불의식에서는 룬비니 동산에 태자의 몸으로 나투신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여의면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리고, 나와 이웃이 돌이 아님을 바르게 자각하면 남과 북이 본다 하나였음을 분명히 알 때 공존과 상생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모두의 손에 연등을 높이 들고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연등 축제의 개최를 선언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달아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과 빈곤이 사라지고 전쟁과 파괴가 멈추고 이 세상이 연꽃처럼 향기롭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며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사가 원만하여 평화와 기쁜 맑은 세상이 되기를 서원했다.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의 행진 선언과 함께 봉축 연합합창단의 축가로 연등제 출발을 알렸다.

불교 충지종은 서울, 경인 교구 스승 및 교도 500여명과 종립동해중학교 학생 100여명, 불교충지종 사회복지관 산하 임직원 등이 동참하여 진언 밀교의 법등을 화려하게 밝혔다. 동국대를 출발하여 동대문,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수많은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울 연등제는 저녁 10시 종각사거리에서 열린 '회향마당'에서 불자가수들의 음악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시민, 외국인, 행렬참가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그 장엄한 막을 내렸다.

5월 11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봉행된 '2013 부산연등축제' 봉축연합대법회에는 불교충지종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화음사 수현 정사)는 스승 및 교도 약500여명과 동해중학교 장재계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풍물패를 비롯한 학생 100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연산재보존회의 연산재 시연과 경찰청 참수리모듬북 공연으로 식전행사를 시작한 연합대법회는, 오후 6시 육법공양으로 충지종 부산, 경남교구장 수현 정사(부산봉축위원회 홍보위원장)가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개회사, 저녁예불, 발원문, 대화사, 범어 등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우리의 정성어린 이 등불이 마음의 어둠을 밝혀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부산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운융성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3년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의 해입니다. 오늘의 연등축제를 인연으로 온 누리에 평화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며 연등축제를 부산 불자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루는 대 서원의 장을 펼쳐치고 말했다.

부산봉축위원회 임원단과 내빈을 선두로 시작된 연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하여 구 범원 앞을 거쳐 용두산 공원 입구 대청동 사거리로 향했다. 충지종 부산, 경남교구는 기수단을 선두로 준제결인, 아기부처님 탄신 불, 관세음보살 등 장엄등과 풍물패에 이어 진언 서원의 염원을 담은 개인 등을 든 교도들이 뒤를 따랐다. 동해중학교 두드림 난타 공연에는 드림이 가세하여 동, 서양의 신명나는 장단을 연출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충지종 부산, 경남 교구 연등 행렬은 회향한마당이 펼쳐지는 부산 중구

생활의 불교화 · 불교의 생활화  
即身成佛의 大道 불교충지종

|일 시| 충기 42년 5월 28일 ~ 7월 15일  
|장 소| 충지종 각 사원  
|대 상| 충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하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 드립니다.

불교충지종 통리원

###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서울 · 경인 교구 보은 행사

충지종 각 사원의 신정회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총지사 신정회(회장 김은숙 보살)는 미사리 한식당에서 효강 종령 예하와 법등 통리원장 및 서울 경인지역 스승님들과 기로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숙 신정회장은 효강 종령 예하께 꽃 공양을 올리며 "미망에 갇혀 어두운 고해의 바다를 헤매이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즉신성불의 진언 밀법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 스승님들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며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등 통리원장 인사말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보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교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염송정진을 통한 즉신성불의 영원한 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자리를 마련한 신정회에 감사를 전했다. 부산,경남 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교구는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신정회 별로 보은의 장을 열었다.

통리원=장동욱 계장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불기2557년 불교 총지종 축제 한마당

## 총지종 전국 사원 봉축법요식 및 사원 축제



▲ 총지사를 찾은 불자들



▲ 총지사 마니합창단 음성공양



▲ 총지사 이은미보살 음성공양



▲ 관성사 어린이불자 만다라 체험

불기2557년 봉축 법요식이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본산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통리원장 범등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기2557년 봉축법요식은 총지사 신정회(회장 김은숙) 육법공양으로 시작 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와 범등 통리원장의 훈향 정공에 이어 총지종 전통의례에 따른 불공은 부처님오신 날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모두가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를 서원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범어를 통해 “지금 이 지구촌의 중생들은 너와 내가 따로 있다는 대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구촌의 재앙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과 진정한 나 자

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실천이야말로 신음하는 지구촌 중생들을 살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굳건한 사명감으로 더욱 용맹정진 하셔야 합니다.”며 자비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참 진리로 공존, 공생하는 지구촌이 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범등 통리원장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우리 자신을 진리에 눈뜨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미혹한 우리의 마음을 밝은 진리의 세계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은 첫째는 좋은 인을 심고 좋은

과를 받는 인과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좋은 인을 부처님에 심어 그 결과물로 좋은 과보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며 수행정진으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법요식 이후에는 이은미 보살님의 음성공양과 마니합창단의 찬불가 공양, 어린이들의 오카리나, 피아노 독주가 이어져 부처님오신날의 축제의 장을 열었다. 총지사에서는 범회기 시작되기 전 정성껏 마련한 떡을 사원 주위 이웃들과 나누고, 일층에는 솜사탕 코너를 만들어 사원들 찾은 불자들에게

공양했다. 통리원 2층 반아실에서 사경의 장이, 총지사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되어 가족들과 함께 총지사를 찾은 어린 불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관성사에서도 컵연 등 만들기, 동물모양 서원지 꾸미기 등, 교도들과 함께한 어린 새싹불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산 정각사에서는 육법공양, 합창단 찬불가 공양과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들의 풍물놀이로 축제의 마당을 활짝 열었다. 이날 불교 총지종 전국의 각 사원은 교도들과 사원을 방문하는 불자들을 위한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취재=총지사 이인성 통신원, 정각사 김정애 통신원, 관성사 김지영 교수

## 종단협을 통한 상호 교류에 더욱 노력 법등 통리원장 태고종, 관음종 예방



▲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의 선물 전달식

불교총지종 법등 통리원장과 총무부장 인선정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인 태고종과 사무총장 종단인 관음종을 신임 인사차 예방했다.

5월 27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을 예방하고,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혜스님 등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와 담소를 나누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불교 총지종 신임 법등 통리원장님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상생하며, 부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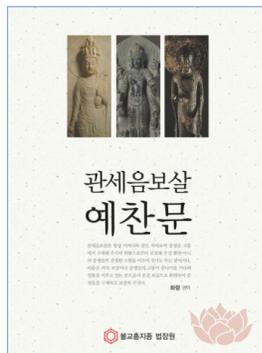
진리를 전하는 흥포와 교화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갑시다.”며 취임 축하와 상생의 방안을 공동으로 찾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법등 통리원장은 “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으로 영산재 보존과 보급에 앞장서시는 태고종의 원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며 태고종의 전통 영산재 보존과 전법 교화의 방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3시에는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에 위치한 관음종 총무원 나산 묘각사를 방문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의 환대를 받은 법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은 집무실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관음종 총무원장이자 종단협 사무총장인 흥파스님은 “묘각사의 이웃 사찰인 총지종 밀인사 주교로 재직하셨던 법등 정사님의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통 밀교 총지종을 이끌어 나가실 법등 통리원장님의 법운 융창하시기를 서원하겠습니다.”며 법등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밀인사 재직 시절 이웃사촌으로 불교 교화의 방편을 조언해 주신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의 법체 건안하심과 대승 종단 관음종의 발전을 부처님 전에 서원하겠습니다.”며 종단의 발전과 불법 흥포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의견을 나누었다.

태고종 총무원, 관음종 총무원=김종열 기자

## 관세음보살 명호의 신비한 영험 불교총지종 법장원 『관세음보살예찬문』 간행



관세음보살의 유래와 명칭, 신행 의의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관세음보살의 공덕에 대해 찬탄한 관음신앙의 대표적 경전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약칭 《관음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등장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다라니경》(약칭 《천수경》)을 수록하였고, 그 밖에 총지종의 소의 경전인 《대승장엄 보왕경》 가운데

불교총지종 법장원은 관세음보살에 관한 유래와 명칭, 신행의 의의를 한권으로 정리한 『관세음보살예찬문』을 새로이 간행했다. (p.227 정가 15,000원, 법보시가 8,000원(10권 이상))

편역자 화령(중앙교육원 원장/철학박사) 정사는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세음보살의 유래와 명칭, 신행 의의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계승을 원문과 함께 수록하여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포함한 관세음 관련 각종 진언을 원어 발음과 함께 수록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해석은 화령 정사가 각종 서적을 참조하여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율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정확한 수행 방법에 대한 해설을 실어 밀교 수행의 접근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계승을 원문과 함께 수록하여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포함한 관세음 관련 각종 진언을 원어 발음과 함께 수록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해석은 화령 정사가 각종 서적을 참조하여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율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정확한 수행 방법에 대한 해설을 실어 밀교 수행의 접근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편역자 화령정사는 “관세음보살 본심 진언을 염송하는 밀교 종단인 총지종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바른 신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책을 편역 할 생각을 하였습니다.”며 “국내의 여러 가지 책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부정확한 부분이 많고, 특히 진언에 대한 풀이가 구구각색인 점을 안타깝게 여겨 오랜 작업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언의 올바른 상징성을 이해하고 관세음보살을 모신다면 공덕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교, 밀교의 구분 없이 법회 중에도 반복하여 경이나 예찬문을 합송하면 좋은 공덕의 결과를 얻을 듯합니다.”며 『관세음보살 예찬문』 간행 의의를 말했다.

법장원=배공주 기자

## 호연지기를 품고 함께 떠나는 창의적 여행

### 우리들만의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자~

#### 참된 나를 찾는 여행

- 여행일정 : 2013년 4월 20일 ~ 7월 21일 중 1박2일 자유선택
- 내 용 : ① 여행날짜, 장소, 일정, 인원 수를 자유롭게 계획합니다.
- ② 참가자 1인당 7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③ 여행 시 꼭 멘토(만20세 이상) 1인과 함께 동반하여야 하며 멘토가 없으신 팀은 행사지원팀에서 지정해 드립니다.

#### 여행 진행 과정...

- 하나. 친한 친구들이 한팀(5명~10명 이내)이 되어 여행날짜, 장소, 일정 등을 자유롭게 계획하기.
- 둘. 계획한 일정을 여행신청서에 예쁘게 작성하여 보내기.
- 셋. 여행 일정에 따라 고고씽~
- 넷. 다녀온 여행후기를 사진과 함께 작성해서 보내기.
- 다섯. 한마음캠프에 모두 모여 여행경험담도 발표하고 즐거운 놀이공원을 함께~

희망의 길, 도전의 길, 자신감의 길...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 자립심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청소년들에게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서 세상을 보는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한마음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 다녀온 참가자들이 모여 여행경험담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

- 여행일정 : 2013년 7월 25일 ~27일 (2박3일간)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양식은 각 사원 주교 또는 행사접수처로 문의. 접수처 : 중앙교육원 배공주 교수 T. 02-552-1080~3



# 부처님 진리의 실천을 통해 생활불교의 대의를 세우자

## -불기2557년 불교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봉축법요식 효강 종령 법어



▲ 불기 2557년 총지사 봉축법요식에서 법문하는 효강 종령 법어

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한 서원당에 모여 부처님 오신 날의 참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 부처님의 참 진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 첫째는, 누구든지 갖고, 닦고, 융맹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사상의 한분의 인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많은 것을 닦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진리를 증득하시고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는 중생 모두가 융맹정진하면 진리를 증득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교시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태자의 몸으로 궁궐에 계실 때는 잘 물랐는데, 궐 밖 나들이를 해보시니까 늙어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아주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는 경우의 사람, 일단 세상에 오면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만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살고 하는 인간의 타고난 생로병사의 고통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은 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풀기위해 유성출가 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동쪽에 솟아오르는 새벽처럼 고행 끝에 깨달으십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진리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는 인연으로 해서 왔다가, 인연으로 해서 간다는 「인연소성」입니다. 이를 부처님의 인연 연기설이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형제가 되고, 어떤 분은 부부가 되고 하는 것이 인연으로 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색심불이」입니다. 색은 물질이고, 심은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근원은 공이다 천명하셨습니다. 정말 심오한 진리 이지요, 오늘까지 불교가 전 세계에 면면히 이어오는 것도 그러한 참 진리를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나가기라 저는 확신합니다.

### 부처님의 진리는 과학이다

요즘 젊은 세대 여러분들을 보면, 과학 아닌 것은 미신이다. 과학적이라야 진리라 합니다. 감히 부처님의 진리를 과학으로 조명 한다는 것은 너무도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만은, 현재 우리 지구상의 모든 과학을 보면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전화기만 봐도 휴대폰 하나만 들면 온갖 것들이 다됩니다. 우리 나 이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과학이 발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근원이 소위 말하는 현대물리학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현대물리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위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원소다 말하는 이를 원소물리학이라 합니다. 뉴턴은 물리학에서는 원소가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은 따로 따로 있다. 이것은 정신이고, 이것은 물질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슈타인박사가 상대성원리를 발견하고, 원소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 전자, 소립자까지 그 분이 발견했습니다. 이로부터 인류의 과학이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근원이 소립자 뿐 만이 아니고, 더 들어가면 통일장이 나오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진공장의 상태가 나옵니다. 거기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과 부처님 말씀의 공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 물리학자가 증명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겠지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과학이 불교의 심오한 진리에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들이 자면, 그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 가면은 모두가 서로 상호적입니다. 하나도 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변하면 저것이 변하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증득하신 「인연소성」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2천 5백 여 년 전에 과학으로 실험한 것도 아니고, 직관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또 한 가지는 「색심불이」입니다. 반야심경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한마디로 정신을 말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꼭 따로 있었는데, 이제 소립자 세상 그 세계에 들어 가면은 정신과 물질이 구별이 없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감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근원은 「공」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모든 것은 우리가, 육식, 팔식, 구식으로 좋다, 나쁘다, 맛있다, 없다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근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입니다. 공은 빌 공자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안에는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는 「진공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과 생명의 근원이 「공」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진리입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은 진공장에서 더 나아가 「통일장」이라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어떤 지혜로 그러한 것을 직관 하셨느냐? 묻습니다. 그 지혜를 불교에서는 범계최승지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완벽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니면 은 직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부처님 믿고 불

교 믿어서 범계최승지를 증득해야 「공」을 제대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물리학자들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과학이 아닌 것은 미신이라 했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가 과학자들이 하나 하나 놀랄 정도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대한 종교 불교를 믿게 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부처님오신 날 연등회 법회에 동참하시고, 열심히 평소에도 융맹정진하시는 그것이 참 진리로 가는 길이고, 참 행복을 증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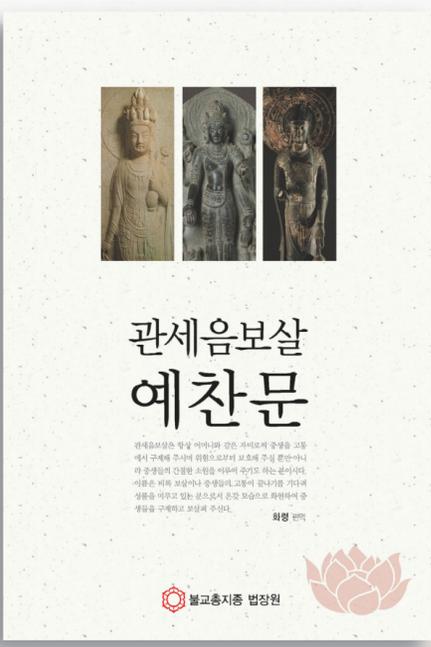
부처님이 남기신 진리의 참뜻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천 종교입니다.

### 불교는 실천의 종교이다.

오늘 이러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융맹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삼평등」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삼평등의 진리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우주, 자연과도 하나입니다. 우주 자연이 전부 생명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신이 「색심불이」, 불이 정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욕심과 탐욕에 젖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남이야 죽건 말건, 적대시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을 정복한다면서 개발 지상주의로 인류가 행복하게 되었다 합니다. 자연을 훼손해서 오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느냐. 지금 지구상의 온난화로 기후가 우리나라만 해도 봄은 짧고, 계속 추웠다가 어느새 갑자기 여름이 왔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 역시 전부 자연과의 대립적인 생각, 자연을 훼손하고 내가 살려고 너를 죽여야 하고, 이런 대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촌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 위기 속에서 가정의 행복과 진정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의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 이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중생들 우리가 전부 구제한다는 사명감으로서 더욱더 융맹정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연꽃을 피워 연등을 밝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다 같이 서원하고 열심히 정진 합시다. 끝으로 여기 동참하신 교도들 뿐 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날이 되기를 서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년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은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곁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훴의 의미와 수행법

# 불기 2557년 서울 연등으로 밝힌 평



▲ 「금강저수」 수인 (手印) 장엄물 (부산,경남교구)

# 을 부산 연등축제 화와 청정의 세상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4)

# 금강살타보살 (金剛薩埵菩薩)



법경 정사

## 금강살타보살, 보리심과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

금강살타보살을 처음 접하는 불자들도 있을 것이다. 밀교에서만 접할 수 있는 보살이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Vajrasattva(바즈라 사트바)'라고 하는데, '바즈라'는 금강이란 말이고, '사트바'는 생명있는 것의 총칭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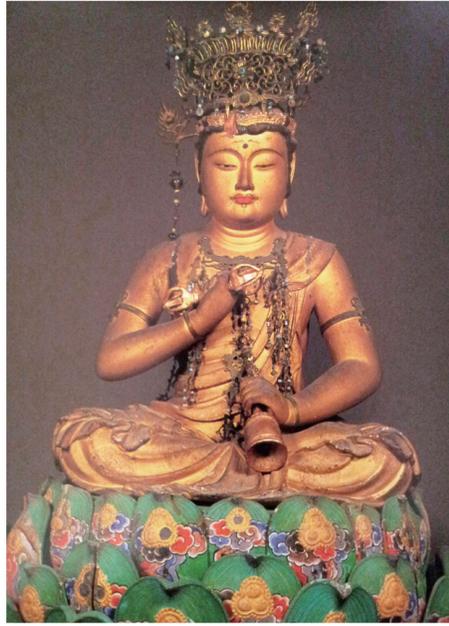
살타(薩埵)는 사트바(sattva)를 음역한 것인데 흔히 우리가 보살, 보리살타라고 말할때의 그 살타를 가리키는 것이다. 금강살타와 보리살타의 살타는 사트바의 음역으로서 같은 뜻의 말이다. 보리살타는 보리를 이루고자 수행하는 유정(有情), 일체중생이다. 성불하고자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살타는 보리를 이루고자, 깨달음을 이루고자 금강같이 수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대개 불교용어는 의역(意譯)의 한자어와 산스크리트어의 음역(音譯)의 한자어를 같이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강살타나 보리살타 등이 그러한 용어들이다. 금강과 보리는 의역의 한자어이고 살타는 산스크리트의 음역의 한자어다.

이 살타는 유정(有情)이란 의미로 생명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곧 불성(佛性)을 지닌 일체중생을 가리킨다. 그 일체중생은 바로 끊임없는 정진수행을 통하여 구경에 깨달음을 이루는 유정(有情)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타'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할 것이다. 그 보리살타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우리 중생들이지 않은가. 같은 맥락에서 그 금강살타 또한 금강같은 신심과 흔들림없는 정진으로 수행하는 우리 자신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금강살타는 어떤 보살인지 좀더 살펴보자. 금강살타보살은 대일여래의 권속 가운데 우두머리격에 해당한다. 대일여래의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보리심과 지혜의 증득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보살이 바로 금강살타보살이다. 그래서 금강살타보살을 보리심과 지혜의 대표적인 보살로 손꼽는다. 대일여래의 법을 전하는 우두머리



▲ 일본 원교사의 금강살타보살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을 달리 집금강보살(執金剛菩薩)·금강수(金剛手)·비밀주(秘密主)라고도 부른다.

집금강(執金剛)은 금강(金剛)같이 굳건한 신심과 불퇴전의 용맹정진력을 붙들어 맨다는 의미다. 즉 금강과 같은 공능(功能)을 지닌 보살이다. 여기에는 19집금강보살이 있다. 이 가운데 상수보살이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보살이 아니고 금강살타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비밀주(秘密主)는 바로 밀교의 교법을 보여주는 말이다. 대일여래의 법이 비밀전수(秘密傳授)로서 사자상승(使者相承)한다는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비밀전수의 중심에 금강살타보살이 있다. 즉 비밀상승의 전수자이므로 금강살타보살을 비밀주(秘密主)라 한 것이다.

## 밀교부법(密教付法)의 제2조로서 진여금강(眞如金剛)이라 불림

이 금강살타를 밀교에서는 대일여래 부처님의 법을 청하고 전하는 보살이라 하여서 '밀교부법(密教付法) 제2조'라 칭한다. 금강살타보살은 비로자나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듣고 이를 결집하여 철탑안에 두고 차후에 용수보살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내용이 바로 『대일경』이다.

이 보살은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에 모두 모셔져 있는데, 태장계만다라에서는 제12대원(大院) 가운데 금강수원(金剛手院)의 주존(主尊)으로 모셔져 있다. 보리심이 견고하여 무너지짐이 없으며 불퇴전의 신심과 용맹심으로 상징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의 존형(尊形)은 엷은 황색을 띠고 있으며 왼손은 요령을 쥐거나 주먹을 쥐고 왼쪽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오른손은 삼고저(三鉗杵)의 금강저(金剛杵)를 쥐고 있다. 요령은 요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용맹심의 표현이며 불끈 쥐 주먹 또한 용맹스러움을 나타낸다. 요령을 쥐는 경우는 금강계만다라의 금강살타의 모습이고 태장계만다라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 용맹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일한 의미이다.

금강저는 원래 고대 인도의 전쟁도구인 무기였으나 이것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면서 수행도구로 변용되었다. 특히 밀교에서 금강저는 수행자가 지니는 법구(法具)로서 굳건한 신심과 불퇴전의 발심을 나타낸다. 금강저는 바로 밀교승의 수행도구이자 금강살타보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물(持物)이다.

금강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독고저(獨鉗杵)라 하고, 셋을 삼고저(三鉗杵), 다섯을 오고저(五鉗杵)라 하며, 열십자(十)로 겹쳐져 있는 것을 갈마저(羯磨杵)라고 한다.

밀교에서는 달리 이 금강살타를 진여금강(眞如金剛)이라고도 부른다. 진여금강은 부처를 이루려는 굳건한 신심과 용맹스러운 발심을 나타낸 밀교의 또다른 이름이다. 진여는 곧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금강같은 신심과 수행을 더욱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여(眞如)

는 달리 보리(菩提)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진여가 부처요, 부처는 보리(菩提)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진여금강을 성불금강이나 보리금강이라 불러도 그곳에는 변함이 없을 듯하다. 진여금강의 이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자 하는 수행자의 발심과 용맹심을 읽을 수 있으리라.

## 금강살타의 진언종자는 '밤'과 '흙'

이 금강살타의 진언을 '나막 사만타 바즈라남 칸다마하 로사나 흙'이라 한다. '널리 금강부에 계시는 존상(尊像)께 귀의합니다. 위엄있고 용맹스러워 크게 진노(震怒)하시는 자여! 흙'이란 뜻이다. 이 금강살타를 진언 하나로 표현하면 '밤(vam)'과 '흙(hum)'이라는 글자이다.

'밤(vam)'은 금강살타를 뜻하는 '바즈라 사트바'의 첫머리 글자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밤'은 대일여래를 뜻하는 진언 글자이지만, 대일여래의 부법자(付法者)인 금강살타에게도 이 진언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른다.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비밀상승(秘密相承)으로 전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일여래를 뜻하는 밤자가 금강살타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흙(hum)'은 경전에 따르면, 최파(摧破)의 뜻이라고 한다. 즉 깨뜨려 부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금강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모든 공포를 격파하는 것처럼 금강저에 비유한 지혜를 가지고 능히 일체의 의혹과 마장을 깨뜨려 부수어 없앤다는 '능파(能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쉽게 흔들리고 퇴전하는 우리들에게 금강살타보살이 이렇게 일갈하고 계시는 듯하다. "오늘도 잘하고 있느냐?" 다음호에서는 대세지보살을 친견하기로 한다.



▲ 티베트의 금강살타보살 [사진출처; 다음넷 블로그(http://blog.daum.net/kkj484851)]

불교충지중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나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 다시 읽는 **우리시조**

##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지은이: 고산 윤선도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 만한 것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추니  
밤중에 光明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고산 윤선도 영정

고산 윤선도(1587년~1671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뛰어난 시인이었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서에 해박하고 의약·복서·음악·지리에도 능통하였다. 특히 시조에 뛰어난 정철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 시조는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 달에 관한 작품이다. 달은 인간의 꿈이요 거울이다. 임의 얼굴이기도 하다가 부처님 자비의 상징이기도하다. 특히 밀교의 월륜관은 수행관법 중 첫째로 친다. 그러나 윤선도는 위의 상징적 요소보다는 '보고도 말 아니하는 것'을 달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다. 밤의 세계에서 가장 밝은 것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도 묵묵히 말이 없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달의 덕목으로 보았다. 오랜 시간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다른 사람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고초를 많이 당한 작자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향을 떠나 전국으로 유배당했다.

고산 윤선도의 입장에서는 서로를 물어뜯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에서 위안을 찾았다. 자연이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위안해주는 최고의 벗이었을 것이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117호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長興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시 대: 통일신라 | 재 질: 철조(鐵造)  
소장기관: 전남 장흥 보림사

전라남도 장흥군 유지면 보림사의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로 만든 불상으로, 현재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잃고 불신(佛身)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지금의 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이 시주하여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서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달걀형의 얼굴에는 약간 살이 올라 있다. 오탁한 콧날, 굳게 다문 입 등에서 약간의 위엄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추상화된 모습이다.

통일신라 전성기(8세기)의 불상에 비해 긴장감과 탄력성이 줄어들었고, 이런 형태의 표현은 신라 불상에서 보여주던 이상적인 조형감이 후퇴하고 도식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9세기 후반 불상 양식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인의 지관인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이 작품은 만든 연대가 확실하여 당시 유사한 비로자나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신라말부터 고려초에 걸쳐 유행한 철로 만든 불상의 첫번째 예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자료제공=문화재청



제48화

선인선과 악인악과

어서 오게! 나와 같이 사냥이나 가세.

허허! 잘 있었나?

헛! 영팔이 어서 오게나. 안 그래도 TO가 부족했는데.

TO? 근데 무슨 애국 열사단 만드나?

건강이라면 생명을 뺀 사냥보다는 달리기를 하세나.

내 밤새 깊게 생각했는데, 큰 거 딱 한 건만하고 손을 씻으려해.

호! 왕팔이 자네 기특하군.

그럼 일본으로 건너가 위안부 망언에 대해 항의할 건가?

저런! 저 영감님이 나무를 다 쏘았군. 우리가 도와주세.

에이! 힘든데 그냥 가지.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일본 박물관을 털려고 그래.

헛! 그거 큰 건이군. 페이는 반반으로 하세.

무슨 말이야! 건강을 위해선 운동을 해야지.

고맙네! 젊은이들.

에잇! 도둑놈아. 내가 물주인데 어떻게 반반이야.

인생이 걸린 건데 반반이 뭐가 많아!

취미로 가꾸는 장뇌삼 발이야. 감사합니다.

거지 영감인 줄 알았는데.

이름, 왕팔이! 영팔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박물관을 털려고 모의.

맞다고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선과 선의 과보를 얻고 나쁜 벗을 가까이 하면 악과 악의 과보를 얻는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수도편 96p-8

##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 생활불교 재가불교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한다”

회령 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사가 6,000원 (10권 이상)

# 진각종 제29대 회정 통리원장 취임식 "헌세정화와 복지증진 구현"



▲ 제29대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취임법회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 취임식이 5월 21일 낮 12시 진각문화전승관에서 봉행됐다.

회정 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불조의 해명을 수순하고 종지와 종풍을 호법전승하여 종단의 발전을 위해 서원정진할 것이며 헌세정화와 복지증진을 구현하겠습니다."며 "진각성존 회당대중사의 가르침을 계승해 누구나 다 진각심인을 구축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진각의 문화를 펼쳐주며 스스로 부처님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수행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종단협의회 부회장 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회정 통리원장님은 진각문화전승관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밝은 신행, 바른 신행, 그리고 즐거운 신행을 담고자 서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진각종이 뜻하는 바 밝고 바르며 즐거운 불교신행의 실현이 원만히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각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육행실천과 진호국가불사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겸소하게 봉행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육자진언의 염승으로 육행을 실천하고 진호국가불사의 실천수행으로 복과 지혜를 더하는 수행의 문화를 스스로 더하고 실천으로 나누어 우리 사회의 덕과 지혜를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경당 정사는 강도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오늘 이 불사의 공덕으로 모든 진언행자의 마음이 밝아져서 종단과 이 사회가 발전하고 환희의 기운 넘치는 밀엄정도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발원했다.

제29대 회정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장인 총무부장 덕정 정사는 봉행사에서 "이제 제29대 회정 통리원장의 취임과 함께 밝은 신행, 바른 신행 그리고 즐거운 신행의 문화를 대중과 함께 나누어 키워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꽃 공양 및 정공에 이어 삼귀명, 강도발원, 개회예찬, 봉행사, 약력소개(집행위원장 겸 통리원 기획실장 해인 정사), 취임선서, 화환증정, 취임사, 신인 집행부 소개, 축사, 축연(명륜심인당합창단)에 이어 오찬을 끝으로 회향했다.

취임식에는 진각종 성조 총인을 비롯해 원로스승들과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총지종 총무부장 인선정사 등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 재)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 선포식 "아프리카에 자비의 씨앗"

5월 28(화)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프로젝트 선포식

재)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 선포식을 5월 28(화)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하

는 일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다. 한국불교의 인류애적 불사로 여기고자 한다."며 "이념과 종교, 빈부와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내리는 부처님의 법바람처럼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자비의 씨앗을 전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영목 이사장은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선포하며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어둠에서 빛을, 그리고 꿈'을 선물했다"며 "교육을 통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꾸려 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런 인적 자원을 개발해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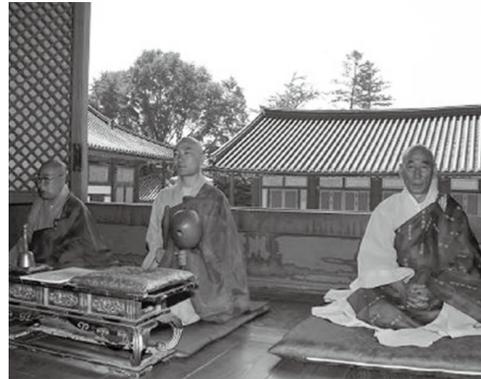
이날 아프리카 학교건립 선포식에서는 정우스님(조계종 구룡사 회주)이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3000만원의 기금전달식을 기탁했다.

재)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헤일스님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 시기는 6월 말쯤이면 가능할 것 같고 지원규모는 약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추가 토지는 농업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한국불교전파의 교두보로 삼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 불교전파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하안거결제 법요식 봉행

## "참 나를 찾는데 매진"

일우스님, 원우스님, 백초스님 5월 24일(금) 하안거 결제



▲ 태고총림 하안거 결제 고불식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설운스님)는 5월 24일(금)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에서는 일우스님, 원우스님, 백초스님이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 선원에서 스님들이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이날 법요식 법문에서 설운스님(선암사 주지)은 "우리 선암사 역사가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니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설운스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이런 중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제 그 동안에 흐트러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다듬어서 그야말로 참 나를 찾는데 매진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호남제일선원 선암사 선원 선원장 상명스님은 "결제의 날이기 때문에 오직 수행정진에 목숨을 걸고 꼭 성불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그 결심이 중요하다."며 "출가수행자의 본분이라는 것은 성불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 이상이고 목표이다."고 말했다.

#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드립니다"

이창희 진주시장 화음사 봉축 참배



이창희 진주시장은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총지종 진주 화음사를 예방하고, 참배했다. 5월 13일 오후 보좌관을 함께 방문한 이창희 시장은 서원당, 득락전에 참배하고 봉

축 연등을 달았다. 이창희 시장은 참배 후 진주 화음사 주교 수현정사와 화음사 신성회 이재호 각자님 회장과 함께 다담을 나누었다.

이재호 시장은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모든 진주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진주시는 유등 축제와 연등축제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상남도 전통의 역사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불교총지종 화음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화음사 주교 수현정사는 "이창희 시장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 성취하시기를 교도들과 함께 서원하겠습니다."며 시정 발전에 노력하는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에 감사의 인

취재=진주 화음사 신성회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5/2	10,000
개천사		5/21	30,000
개천사	강순시	5/22	10,000
건화사	이연호	5/23	5,000
관성사	황성녀	4/30	10,000
관성사	인선	5/20	20,000
기로	대관	5/20	10,000
기로	대자행	5/20	10,000
기로	밀공정	5/20	10,000
기로	범수원	5/20	10,000
기로	법장화	5/20	10,000
기로	법지원	5/20	10,000
기로	불멸심	5/20	10,000
기로	사홍화	5/20	10,000
기로	상지화	5/20	10,000
기로	수증원	5/20	10,000
기로	총지화	5/20	10,000
기로	선도원	5/20	10,000
기로	해정	5/22	10,000
단음사	법연지	5/20	10,000

덕화사	하순옥	5/21	5,000
만보사	정덕순	4/26	10,000
만보사	이가환	5/12	10,000
밀인사	정정희	4/30	5,000
벽룡사	무명씨	5/6	10,000
벽룡사	무명씨	5/6	10,000
벽룡사	양지현	5/20	10,000
벽룡사	양정현	5/21	10,000
본동가람노인정			
	안상근	5/16	30,000
삼밀사	오혜민	5/2	10,000
삼밀사	서령	5/2	10,000
선림사	황귀석	5/21	10,000
선림사	심지장	5/21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5/20	45,000
수인사	김봉기	4/26	10,000
수인사	황보기문	5/13	10,000
수인사	황보기문	5/23	10,000
승천사	원봉	5/16	10,000
승천사	지선행	5/16	10,000

실보사	이순옥	5/6	10,000
실보사	이순옥	5/24	10,000
실지사	송우섭	5/6	5,000
실지사	정우석	5/9	10,000
실지사	박병성	5/16	10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4/26	30,000
	김지영	4/29	10,000
	이준동	4/29	10,000
	최복란	5/6	10,000
정각사	박동희	4/29	10,000
정각사	구정희	5/15	20,000
지인사	승효계	5/16	10,000
지인사	지성	5/16	10,000
지인사	허성동	5/21	30,000
총지사	법등	5/6	30,000
해정사	조성기	4/30	10,000
화음사	강순란	5/3	5,000
흥국사	지정	5/16	20,000
	강경화	4/26	10,000

흥국사	김규동	4/30	100,000
	서선숙	5/1	10,000
	진평	5/16	5,000
	김갑선	5/20	10,000
	최영례	5/20	10,000
	원정언	5/21	50,000
	조창환	5/22	10,000

##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9

사념처 수행



철학박사 화령 (중앙교육원장)

# 사계분별관(四界分別觀) 신념처 수행의 한 가지

### 사대개공(四大皆空)으로 무아를 관한다

사계분별관은 신념처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몸을 분석하여 신체가 결국은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각성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나'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습성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관법은 우리의 몸이 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사대가 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우선 사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 사대란 무엇인가?

사대(四大)는 '사계(四界)'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가리킨다. 인도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를 지, 수, 화, 풍의 네 가지로 보았다. 이 네 가지가 모든 물질의 바탕이 된다고 하여 사대라고 불렀으며 이 사대로써 세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여 사계라고도 한 것이다. 우리의 몸도 사대로 구성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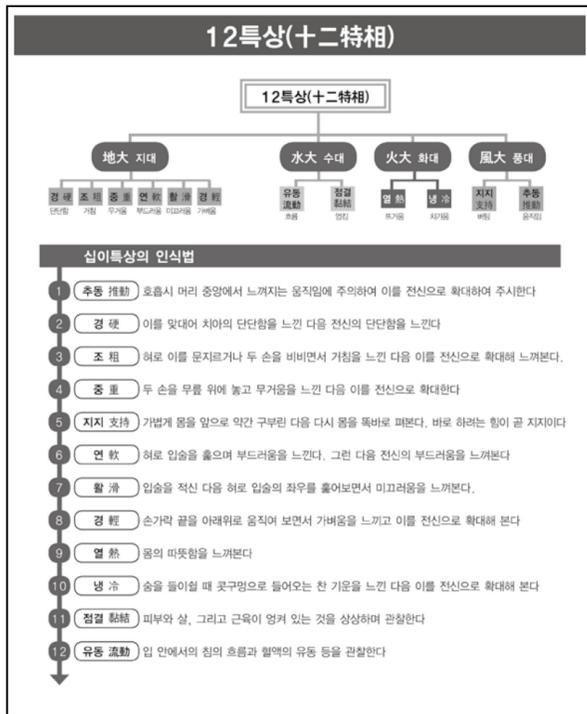
나중에 밀교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 수, 화, 풍의 사대 이외에도 공(空)과 식(識)을 더하여 '육대'라고 했다. 지, 수, 화, 풍의 사대로써 채울 수 없는 요소를 '공'으로 보고 여기에 정신적 요소인 '식'을 더하여 육대라고 했던 것이다. 물질적인 요소인 사대에 정신적인 요소인 식을 더하여 우주 만물을 인식한 것은 탁월한 안목이며 당연한 이치이다. 물질적 요소 이외에도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적 요소가 없다면 이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육대체대설(六大體大說)'을 내세워 대일여래를 설명한다.

사계분별관에서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공과 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지, 수, 화, 풍에는 각각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이를 견(堅), 습(濕), 난(暖), 동(動)이라 한다. 즉 지에는 단단한 성질이 있고 수에는 물기가, 화에는 따뜻한 성질이, 풍에는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영식전도를 할 때에 "죽으면 뼈와 터럭과 살은 다 땅에 돌아가고, 피와 땀과 진액은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에 돌아가 사대가 각각 흩어지고..."라는 무상계의 내용이 곧 이러한 사대의 성질을 밝힌 것이다.

#### 왜 사대를 관찰하는가?

이러한 사대가 모이게 되면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생하는 것이며 사대가



흩어지면 그것이 곧 멸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대는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 우리 신체의 세포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잘 생각해 보면 굳이 불교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은 항상 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늘 그대로이며 그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몸이 시시각각 변하며 혈육으로 뭉쳐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사대분별관이다.

#### 사대분별관의 수행방법

사대분별관에서는 사대를 더욱 엄밀하게 세분하여 관찰하는데 이를 특성별로 나누면 12가지가 되며 이를 십이특상(十二特相)이라 한다. 즉, 지대에는 경(경; 단단함), 조(조; 거침), 중(중; 무거움), 연(연; 부드러움), 활(활; 미끄러움), 연(경; 가벼움)의 6가지 성질(육상(六相))이 있고, 수대에는 유(유; 흐름)와 점(점; 점결);

영김)의 2가지 모습이 있으며, 화대에는 열(열; 뜨거움)과 냉(냉; 차가움)의 2가지 모습이 있고, 풍대에는 지지(지지; 버팀)와 추동(추동; 움직임)의 2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십이특상이라고 한다.

관법을 행할 때는 자기 몸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성부터 관찰하여 차례로 12가지의 모든 특상을 관찰하고 느낀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특상을 몸 전체로 확대하여 관찰하고 느끼는 식으로 우리 몸의 12가지 특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느낀다.

사대분별관은 신념처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몸의 극히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며 느껴야 한다. 그 순서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가장 현저한 추동을 파악하여 몸 전체로 확대하는데 호흡을 할 경우 머리 중앙부의 추동을 인식하고 점차 가슴과 배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쓴다. 그런 다음 경(경), 조(조), 중(중), 연(연), 활(활), 연(경), 유(유), 점(점), 열(열), 냉(냉), 지지(지지), 추동(추동)의 순서로 관찰해 나가며 이를 반복하여 인식한다.

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지, 수, 화, 풍의 어느 한 요소가 다른 것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져 견디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특히 단단함이나 열, 추동 등은 특별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력을 어떤 한 특성의 대립되는 성질에 더 집중하여 균형을 맞춘다. 예를 들면, 단단한 느낌이 지나칠 때는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뜨거운 느낌이 강할 때는 찬 것에 집중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모든 계(界)의 균형을 맞추어 숙련되게 12특상을 관찰한 후에는 그것들을 지, 수, 화, 풍의 사대로 나누고 부단히 이를 반복하여 느낀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의 특상에 치우치지 않고 전신의 십이특상을 동시에 관찰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신체가 단지 회색의 사대의 무더기로 보이며, 여기에 계속하여 집중하면 나중에는 백색체의 사계로 변하며 다시 더 집중하면 투명체로 변하여 광명을 발하게 된다고 한다. 계속하여 투명체의 공간에 주시하면 투명체가 부셔져 여러 색의 모임으로 되며 이어서 하나의 색 속에 사대가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고 한다.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사대분별관은) 마치 소를 잘 잡는 사람, 혹은 그 재자가 소를 잡는 것과 같으며 또한 잡은 소를 분해하여 사거리 한 복판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어떤 자세에서도 각종 계로써 이 몸을 관찰하느니 이 몸에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있다.”

이 말씀은 소를 잡고 또 그 잡은 소를 토막토막 분해하여 해체 놓듯이 수행자도 자신의 신체를 소를 잡아 해체하듯이 부분부분을 분해하고 또 분해하여 관찰하여서 자신의 신체가 없어지고 오직 사대만이 남을 때까지 관찰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면 수행자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며 몸을 진정한 '자아'라고 하는 생각이 달아나며 나와 남,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도 없어진다. 우리의 신체라는 것은 단지 사대가 일시적으로 화합하여 모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러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면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상의 '나'에 집착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아상과 아만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생에 대한 분별심도 없어져 자신이 그만큼 더 크게 우주로 확대되는 것이다. 나를 버림으로써 더 큰 나를 찾는 것이 사계분별관의 궁극목적이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할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 우리 가족은 모두가 총지인

만보사 통신원 민순복



▲ 만보사 유복근 통신원의 단란한 가족

제가 총지중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에는 제 곁에 좋아하는 언니 보살이 있었습니다. 삼성동에 있을 때 설법만 듣고 오자며 절에 가자고 내 손을 꼭 잡고 갔던 곳. 생각 없이 언니 보살이 좋아서 가끔 따라다니던 만보사로 삼성동에서 대사동 이사를 하고난 이후에도 언니 보살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합창만 하고 오라며 데리고 갔던 만보사에 어느 날부터 월초불공을 하게 되었고, 시간을 내어 가끔 만보사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초 불공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환희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려준 말씀. 『쌀 서 말을 부처님께 올리고 불공을 하면, 좋은 물병 세 개를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결에 좋은 물병이 무언가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음날 곧장 만보사로 달려와 쌀 3말을 올리고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매매 안 되던 애태우던 토지가 매매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딸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막내아들은 대전에 있는 과학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좋은 물병 3개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기쁜 소식 3가지를 주신 부처님 말씀,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초발심이 일어 환희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쪽 발이 아닌 두 발에서 온몸까지 풍덩 담기고 부처님 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염송을 하며 월초불공을 잘 지키게 되고 자성일도 언니 보살이 가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가려고 마음을 내었습니다.

아이들이 차츰 성장하여 결혼 적령기

가 되어 마음으로 "사돈을 맺을 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실천하는 가족과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돈도 딸 사돈도 모두 중매로 이루어지고 양쪽 사돈 모두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 실천하는 불교 가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매년 전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연등 만들기」 봉사하고 육법 공양도 올립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도 육법 공양에서 예쁜 꽃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등표에 예쁜 서원 사당을 써주는 연등 접수를 받았고, 저는 부처님 도량에 예쁜 꽃꽂이 공양을 올리는 저희 가족은 부처님 도량에 봉사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부처님 도량에 봉사 할 수 있는 큰마음을 내게 해주신 부처님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뿌듯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총지중 큰 스승님께 조심스럽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모두 제도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행에 부족함이 있다고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찰나에 5월 24일 통신원 워크숍에서 총지화 스승님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종단 큰 스승님들 수행 생활과 좋은 법문을 특강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면 부족한 저희들을 수행과 제도 교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양식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특강 꼭 듣고 싶습니다.

# 불자생활법률

###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5년 전 김씨의 소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과 인접한 김씨 소유의 또 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박씨가 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와 대지를 측량해보니 박씨의 명의로 등기된 대지 중 20평방미터 정도를 제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기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박씨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판례는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판결).

또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

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95다55603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15446판결).

따라서 귀하는 박씨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선의 소박한 예술을 사랑한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5월 25일 ~ 7월 21일)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민예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 한국이름으로 유종열(柳宗悅)이다. 그는 로댕, 윌리엄 블레이크 등 서구예술가를 시작으로 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선, 일본, 중국으로까지 넓혀 동서양을 초월한 미술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윌리엄 블레이크, 조선, 영국, 일본, 중국 및 기타 아시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진행되었던 그의 수집활동과 버나드리치와의 오랜 교우관계 등 문예사상가로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업적과 활동을 일본민예관 소장품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가 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에서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린다.

### 잡지 시라카바(白樺), 윌리엄 블레이크 그리고 버나드 리치

1910년대부터 일본의 미술계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교류를 도모하고 유럽예술계의 정보와 새로운 경향을 이입하려는 노력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잡지 『시라카바(白樺)』는 1910년부터 1923년까지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한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883~1971, 문학가), 무사노코지 사네야츠(武者小路實篤, 1885~1976, 문학가), 기시다 류세이(岸田劉生, 1891~1929, 화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81~1930, 종교 사상가) 등이 참여하여 기독교 신학을 비롯한 서양철학, 서양미술 등 서양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야나기 무네요시의 역할은 기획, 편집에서부터 표지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졌다. 『시라카바』 동인은 잡지발간 이외에도 강연회, 전시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 조선과의 만남

야나기가 조선도자기를 접한 시점은 1909년 『시라카바』 활동을 준비할 무렵 골동품점에서 모란무늬 항아리 한 점을 구입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야나기 무네요시의 관심이 조선으로 향하게 된 것은 조각

가였던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1884~1964)로부터 선물받은 조선시대 도자기 한 점을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사카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는 경성, 광주 등 잘 알려진 도시를 비롯한 계룡산 가마와 같은 공예품 생산지를 여행하여 수집을 행하였다. 그가 수집했던 공예품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수집하였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도자기를 시작으로 하여 가구, 각종 기구, 회화, 자수, 금속공예, 목공예, 석공예 등 전방위에 걸쳐져 있다.

야나기는 이러한 공예품에는 조선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야나기는 조선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일본군의 탄압에 의해 소실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고 1924년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였다. 야나기는 예술이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으로서 '무심', '무작위', '무의식'과 같은 개념으로서 설명하였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미술사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의 미학은 일본이 창출한 조선의 이미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예술이 야나기의 미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동양사상과 종교의 구태의연한 전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근대문화와 기독교사상을 추종하였던 야나기의 시각과 사상이 동양을 회귀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동양미의 재인식은 이후 그의 예술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으며 종교미술, 민예론에 대한 체계화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는 야나기의 예술론을 순서대로 잘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취재, 편집=편집위원회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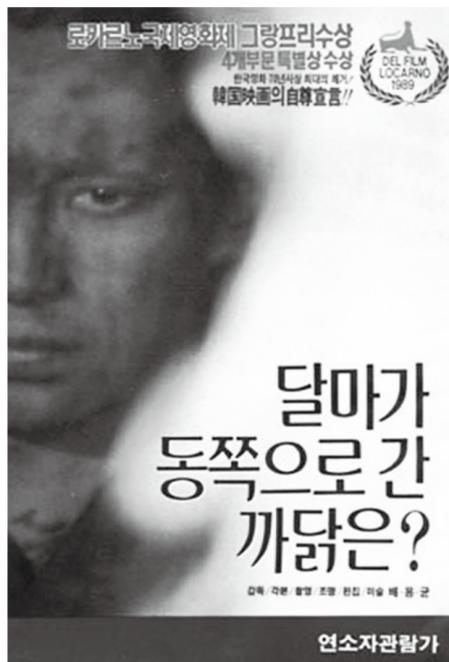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영화에서 불교보기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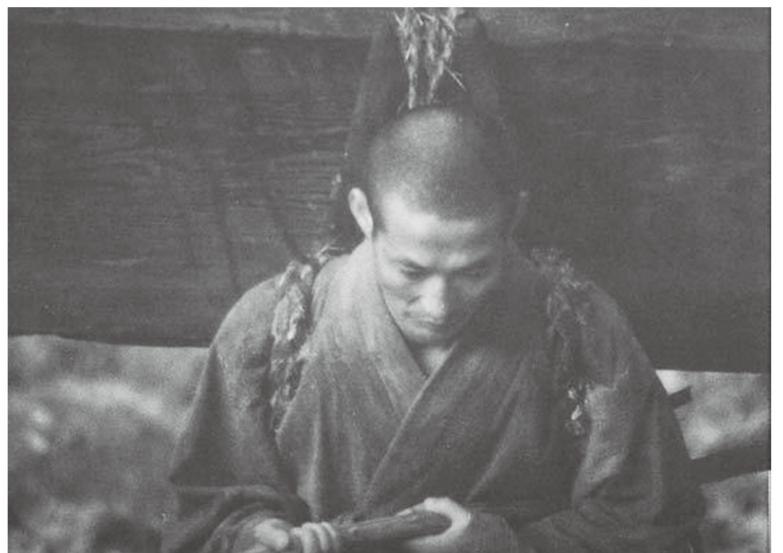
죽음, 빠진 이빨을 버리는 정도의 퍼포먼스

가장 모범적인 불교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러니까 배용균 감독이 만든 이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아주 새로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계를 통해 현상계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었던 '엄화미소(拈華微笑)' 처럼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감독은 어려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영화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스님은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스님으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스님은 젊은 스님으로 그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나무하고, 절 살림 살고, 큰스님 시봉 하고, 절 안팎의 모든 일이 그의 노동에 의해 굴러가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번민이 있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가는 했지만 집에 두고 온 눈 먼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과 애착, 이런 감정들로 마음이 번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자가 있습니다. 동자는 2살 때 시장에 버려져있는 걸 노스님이 업어와 키웠습니다. 동자는 엄마의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도 슬픔도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가질만한 외로움, 무료함, 이기심, 순박함, 이런 태초에 가져온 감정들을 갖고 있기에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를 알고 있었고, 스승답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해진 스님이 버려진 자기 이빨을 찾아내서 소중하게 옮겨잡는 걸 보고는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이빨을 옮겨잡는 그 마음 때문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노스님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나온 탄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곡스님은 어린 해진 동자에게 그 이빨이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맹이나 하나도 다들 게 없다고 타이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이빨은 소중하고 돌맹이는 나와 무관하다는 마음의 분별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육신은 결국 이렇게 불구멍이 속에서 타들어가고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는 집요하게 불길을 잡습니다. 그렇게 밤 내내 타들어간 육신은 아침이 되자 재로 남습니다. 제대로 타지 못한 뿔조각은 기봉스님이 다시 뿔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까지 리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훌륭한 스님도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묘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재로 남은 해곡스님의 육신은 기봉스님에 의해 뿌려집니다. 그 재는 물 속에 뿌려지고 바람에 날리고 숲속에 버려지고 하면서 흙의 양분이 되고, 물고기 밥도 되고, 마침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한국, 1989)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화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 렌즈를 통해 대상을 관찰 하듯 감독은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현상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성과 있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또한 감독의 렌즈는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영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승의 렌즈를 통해 현상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의 의문에 대해서도 선불교의 입장을 빌어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스님인 해곡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자 나머지 둘에 대해서 스승 역할을 하고, 또한 아주 행복한 세계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해진 동자와 기봉스님은 노스님과 달리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면서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여 노스님의 자유자재한 행복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학생 신분인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어린 두 스님들이 수행과 배움을 거쳐 큰 스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주 골격입니다.

해진스님이 버려진 이빨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기'라는 소유욕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진스님의 이빨이 예전에 해진스님의 몸에 붙어있을 때 해진스님의 것이었지만 이제 길에 버려졌는데도 여전히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진스님이나 기봉스님이나 모두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빨이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것처럼 이 몸도 그렇게 사라질 것인데 절대로 근본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작된 '이 몸이 바로 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있으니 죽는 걸 걱정하게 되고, 또 이 몸을 낳은 부모와 형제도 갖게 되고, 거기서 많은 소유욕이 생겨나고 애착이 생기고, 고통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이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끝나고 과연 노스님의 두 제자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노스님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었던 활구를 통해 기봉스님과 해진스님은 성장했을까, 하는 의문이 납니다. 또한 그들의 성장이 이 영화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등장인물은 당시 한국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든든 보듯 못했던 신인 감독이 완전 새로운 면모로 영화문법에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80년대는 김기덕도 홍상수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로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을 때인데 이 영화는 세계 영화제 중 하나인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당당하게 그랑프리인 황금표범상을 비롯해 중요한 상을 휩쓸었으며, 칸느 영화제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문'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인 감독으로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후 배용균 감독은 사람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됐으며, 다음 영화가 기다려지는 감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먼저 괴로운 사람이 괴로운 이유를 찾아내야 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기봉스님이 괴로운 이유는, 집에 두고 온 눈 먼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눈 먼 어머니와 함께 살 때도 괴로웠습니다. 생활의 무게와 알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절로 왔고, 마침내 노스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속가에서는 영혼이 똑달라서 괴로웠는데 절에 와서는 오히려 속가 격정으로 괴롭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는 그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괴로움은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영화는 해곡스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빨 에피소드에서 보여주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킵니다. 이빨이 버려지면서 길가의 돌맹이와 다름없어진 것처럼 육신 또한 그런 운명이란 사실을 깨달아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객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해곡스님의 입적 후 기봉스님은 산을 내려갑니다. 해진 스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뜬구름에게서는 어디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 또한 그렇다는 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와 함께 떠나갑니다. 여기서 소는 불성을 의미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꼭 깨문 화두를 뱉어서는 안 된다는 해곡스님의 당부처럼 그가 어느 곳에 있던 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화두를 늘 챙겨서 불성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봉스님은 스승의 죽음을 통해 불성에 더욱 다가간 삶을 살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목 참 특별합니다.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먼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지만 정답을 찾을 길 없어서 의심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걸 화두라고 하지요. 간화선에서 중심을 삼는 게 화두고, 영화는 화두의 형식을 빌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진동자의 괴로움은 어느 날 새 한 마리를 잡아 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동자는 우연히 날아가는 새 한 쌍을 발견하게 되고, 동자는 무슨 마음에서인지 둘을 던져 새를 잡습니다. 둘에 맞아 다친 새를 절로 데려와 물레 숨겨놓고 물도 주고 하면서 간호를 하지만 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새가 죽자 동자는 새를 기왓장 아래 숨겨둡니다. 후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새의 시체에서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에서 동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동자에게 현상계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오줌 누려 일어났다 나무에서 울어대는 새소리와 산짐승 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가듯 방으로 숨기도 하고, 큰스님 약사발을 들고 가다가도 새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곡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는 도인이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삶을 한 근이나 잘라낼 때도 웃을 수 있는 경지, 육신에 대한 애착을 많이 끊어낸 경지에 이른 해곡스님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제자인 기봉스님에게 죽음과 관련한 당부를 상세하게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관으로는 반닫이를 쓰고, 입었던 옷 그대로 그 관에 넣어서 하루 밤 사이에 다 태워달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당부에는 몸에 대한 어떤 존중도 슬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한 이빨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듯이 쓸모가 없어진 고기 덩어리를 처리하는 것 같은 담담함이 느껴지는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해진스님은 절에 남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는 여법하게 예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해진스님을 맴돌던 짝 잃은 새는 떠나갑니다. 이는 해진 스님이 새의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됐던, 불안과 두려움, 애착, 죄의식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또한 쓸데없는 감정을 극복하고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엄화미소'와 관련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까만 화면에 '그는 진리를 묻는 제자 앞에 한 송이 꽃을 들어보였다.'는 하얀 문장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보여주었던 연꽃의 의미와 궤를 같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섭이 유일하게 그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감독 또한 자신이 보여주는 영화의 의미를 관객이 알아채기를 기대한 장면이면서 또한 영화가 현상계 이면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자 주변에는 늘 새 한 마리가 쫓아다녔습니다. 동자가 죽인 새와 한 쌍을 이뤘던 새로 짝 잃은 새입니다. 동자에 대한 원한과 잃은 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동자가 갖고 있는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걸 상징하는 매개물입니다. 결국 동자는 새 한 마리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을 무더기로 꺼내게 된 것입니다. 기봉스님이 집에 두고 온 노모에 대한 죄의식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인 노스님은 이들이 불행한 이유

해곡스님의 육신은 스님의 유언처럼 장작더미 속에서 밤 내내 타들어갑니다. 영화는 오랜 시간 육신이 불 속에서 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해곡 스님도 기봉스님에게 자신의 죽음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다비식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은 육신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직시해서 그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통해 기봉스님과 해진동자처럼 한 단계 의식이 확장된 경험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건 이빨이 입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정도고, 죽음이란 빠진 이빨이 버려지는 것 정도의 차이 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빨이 한때는 내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무관한 물건이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후 다른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몸이 흙과 물과 바람으로 허공중에 흩어지고 나면 나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라는 화두를 하나 챙기게 됐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